



여수 김석철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강원훈



장성 반정모



장흥 김종민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변화 두려워 말고 우리부터 개혁하자”

“지난 3년간 군민이 행복한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7만 군민과 공직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3일 군정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6기 취임 3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3년 군정성과 등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구 군수는 “돌이켜보면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화순군을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군정을 추진해 지역이 안정되고 실추된 군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이미지가 바뀌면서 군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했는데 군민과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도와서 가능했다”며 “앞으로 오직 군민의 편에 서서 더 개혁하고 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충곤 군수는 민선6기 3년간 주요 성과로 군의 청렴도 수직상승, 화순적 대포 관광지 발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화순 이진,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본격 추진, 호남19특수구조대 유치, 능주 종합양돈단지 내수변양식단지·수신식

구충곤 화순군수, 취임 3주년 소회 밝혀 크고 작은 성과 감사...변화와 개혁 당부



품격단지 유치 등을 들었다.

구 군수는 “전국 최하위 권이던 군의 청렴도가 국민권익위 평가 결과 수직상승했다”며 “이는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공을 공직자들에게 돌렸

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털어냈다.”

시장군수협의회 주관으로 국외 출장이 오래 전 계획돼 가기 전에 가뭄 극복 현장을 방문했고, 큰 문제가 없

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농심을 헤아리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자기반성이다.

구 군수는 “헤아는 농심을 헤아리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군민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 없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공직자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민선 6기 3년간 크고 작은 성과가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구 군수는 변화와 개혁을 당부했다.

구 군수는 “민선6기가 성공해야 여러분이 성공하고 군민이 성공한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두려워 말고 우리 스스로 앞장서서 개혁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민의 편에 서서 어떤 게 올바른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군민이 ‘공직자는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 모두 새 출발하자”고 덧붙였다.

회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하수도 배수설비 대행업체 지정

건물 신축 시 지정 대행업체서 시공해야

순천시는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체 10개소를 지정했으며, 앞으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반드시 지정된 대행업체에서 시공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배수설비 대행업체는 재원건설(주), 유일건설(주), (주)금마토건, 에스에스산업(주), (주)동부그린환경, (주)금정, 세강건설(주), (주)금강수자원, (주)현대수도, 금농토건(주)이다.

건축주가 배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대행업체 중 1개 업체를 선택하여 순천시 허가민원과에 건축물 신고 시 배수설비 신고를 같이 하

면 된다. 그동안 건축주나 건설업자가 임의 시공하면서 잘못된 연결로 인한 악취 발생, 도로 함몰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했기에, 순천시는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전문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체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배수설비 대행업체 지정으로 하수도 배수설비에 있어 시민에 대한 편의 제공과 함께 하수도 배수관 정비·유지관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철도관사마을 ‘내일로 가는 기적소리’ 울려

순천시, 철도마을축제 개최

순천에는 철도문화가 있는 특별한 면서도 아기자기한 철도관사마을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전라선 개통과 함께 철도사무소가 생기면서 철도국 직원의 주거 공간으로 형성된 공간이다.

철도관사마을에서 1일 내일로 가는 기적소리 철도마을축제가 열렸다.

이날 축제는 동네한바퀴 및 보물찾기, 철도문화체험, 철도인 이약실 선생 관사 개방, 한일문화체험 등 체험행사와 지역주민들의 재능기부 공연, 아고라 공연 등으로 펼쳐졌다.

특히, 내일로의 성지인 순천 방문 청춘들을 위한 내일로 버스킹 한 마당도 진행됐다.

이날 철도마을축제에서는 지난 5월 10일에 개장한 순천 철도마을 게스트 하우스 1층에 마련된 마을박물관 개관식을 가졌다.

마을박물관은 철도 관사마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사진자료 등 철도 관련 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조종훈 순천시장은 “철도마을축제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마을 축제로 의미가 있다”며, “청년들이 운영하는 청춘창고가 새롭게 만들어져 있고 철도마을이 역사 관광 자원으로 조성되면 순천의 새로운 관광지가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근대의 상징인 철도와 기차, 거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는 철도관사마을을 역사 관광 자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철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인 ‘철도 캐토리’를 내년 3월에 선보일 계획이며, 철도 관사마을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정원형 전망대’를 2018년 초 완공할 예정이다.

또, 철도관사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내일로의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일련된 골목정원과 생울타리 재현, 이간정관 조영 등으로 조성한다.

시는 철도관사마을을 주민들의 생활과 근대문화자원이 어우러진 생활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김종영 기자

나주시 영산동, 영산포 죽전골목 향수 재현

전통 죽집 본격 운영...영산포권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나주시 영산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민주)가 영산포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죽전골목 ‘전통 죽 집’ 사업이 7월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산동 주민자치위는 지역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던 그 시절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옛 죽전 골목의 다양한 전통 죽을 재현,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며, 판매 수익금을 영산포 근대화거리 조성사업 재투자 비용 및 불우이웃

왔으며, 아울러 위원들은 냉장고, 식기 등 죽 집 운영에 필요한 집기 생활집기 구입비용을 지난 영산포 흥어축제서 위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음식부스를 운영하며 거뒀던 수익금으로 충당했다.

영산동 주민자치위는 지역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던 그 시절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옛 죽전 골목의 다양한 전통 죽을 재현,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며, 판매 수익금을 영산포 근대화거리 조성사업 재투자 비용 및 불우이웃

성금 등 사회환원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민주 주민자치위원장은 “영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죽전골목 정비사업을 비롯해, 근대화 건물 복원·이야기 벽화·오포대 복원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면서, “이번 죽전골목 전통 죽 집 사업을 영산포 흥어, 황포포대 관광 등과 연계해 영산포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관내 기관·사회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조성사업 재투자 비용 및 불우이웃

신안=박용식 기자

신안군, 농기계 관리요원 교육 추진

신안군은 지난 6월 29일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군정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13개 읍면 농기계임대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관리요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13개 읍면 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취급조작 요령 및 도로주행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계절별 농기계 보관 방법 등 농기계임대센터 운영과 전산프로그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읍면간 정보교환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전국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농기계임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신안군은 그동안 농기계임대센터와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섬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도비와 군비를 꾸준히 확보하여 노력한 결과 13개 각 읍면에 농기계임대센터를 설치하고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농작업기 84종 865대를 구입하여 임대하여 왔으며 올해는 추가로 필요한 농업기계 41종 94대를 구입하고 읍면별 배치 중에 있다.

신안=박용식 기자



광양시, 건강생활 지원센터 본격 개관

광양시는 지난 6월 30일 광영동 주민들의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광영동 금영로 127) 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정현복 의장을 비롯하여 시의회 송재현 의장 기관 단체장과 관계자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시설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영동 주민의 오랜 숙원인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관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센터가 우리 시민 가까이에서 건강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민의 건강 요구에 맞춰 나가고 있다.

광양=김종영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 IN

국가건강검진

혈관 건강검진, 생체신경기 건강검진, 병유아 건강검진, 임 검진,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건강검진율 증가 42%p, 사망률 감소 18%p

보건복지부 | 읍면별 안내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